

인텔리안테크, 해상 솔루션 대거 시연… “안전 향해 실현”

코마린 2025

C700·C200M 시스템 등 전 세계
극지방 포함 전세계 통신 서비스
성상업 대표 “글로벌 시장 이끌 것”

선박 위성 안테나 부문 전 세계 1위인 인텔리안테크가 항해, 조타, 안전 등에 필요한 선박 디지털 토탈 장비·솔루션 분야 글로벌 시장에 당당하게 도전장을 던졌다. 사실상 유럽, 일본 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K-조선’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새로운 포부를 밝히면서다. ‘토종기업’ 인텔리안테크가 전 세계 바다를 오가는 선박들의 안전 항해를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첫 작품은 이리듐(Iridium)의 저궤도(LEO) 위성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제 해상 조난 및 안전 통신 서비스’(GMDSS)를 제공하는 C700과 C200M 시스템이다.

‘GMDSS(Global Maritime Distres



성상업 인텔리안테크 대표가 21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코마린 2025(KORMARINE 2025)’에서 제품을 시연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sand Safety System)’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지정한 글로벌 해상 필수 안전 장비로, 300톤(t) 이상이거나 승선인원 250명 이상인 모든 배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선박은 현재 전 세계에는 약 15만척이 있다.

특히 인텔리안테크가 3년 가량의 기간을 들여 개발·출시한 C700, C200M은 국내 GMDSS 제품 최초로 유럽연합(E

U)의 선박 장비 인증인 ‘MED(Marine Equipment Directive) Wheelmark(휠 마크)’를 획득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검증받았다.

성상업 인텔리안테크 대표(사진)는 조선·해양 산업 전문 전시회인 ‘코마린 2025(KORMARINE 2025)’ 개막 첫 날인 2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선박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장

비를 국제 인증을 통해 공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항해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종합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동시에 위성통신 단말기나 안테나 사업을 주로 영위하던 회사가 해상용 전자 디지털 장비 및 솔루션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 대표는 선박의 조타실에 들어가는 레이더, 전자해도, 어군탐지기, 블랙박스 등 연간 5조~6조원 가량의 시장을 정조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 대표는 “첫 제품에 이어 내년 2월에는 패키지도 출시하는 등 라인업을 추가로 구성해 수년간 GMDSS 제품으로만 10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향후 5년 안에 기존 해상용 제품과 디지털 장비를 포함해 총 3000억~4000억원의 매출을 목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텔리안테크는 지난해엔 2578억원을 매출을 올렸다.

2004년 설립한 인텔리안테크는 글로벌 위성 통신 안테나 및 솔루션 회사로,

해상용 위성통신을 포함해 이동형 위성 통신 안테나 시스템 분야에서 당당히 글로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회사가 이번 ‘코마린 2025’에서 선보인 C700, C200M은 극지방을 포함한 전 세계 해상에서 조난 발생시 끊임 없이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성 대표는 “새로 선보인 시스템은 조난 상황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적용했고 윈터치 조난 경보, 긴급 음성 통화, 해상 안전 정보(MSI) 제공 등의 기능을 통해 해상구조센터와 즉각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해상 조난 안전 통신 뿐만 아니라 ▲선박 보안 경보 시스템(SSAS) ▲선박 장거리 위치 추적 시스템(LRIT) ▲상용추적시스템(Commercial Tracking) 기능도 기본으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인텔리안테크의 제품들은 비상 통신 외에 상용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한다.

/부산=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벤처 재직자 10명 중 7명 “충분한 보상시 52시간 초과 근무”

벤처기업협회 인식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61% 조직문화·근무환경 만족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10명 중 6명은 조직문화, 근무환경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미흡한 재정적 보상 ▲체계적이지 않은 조직 ▲불안정한 조직 비전 등은 벤처기업의 단점으로 꼽혔다.

이같은 내용은 벤처기업협회가 설립 30주년을 맞아 벤처기업 재직자 2141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해 21일 내

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2%는 현재 다니고 있는 벤처기업의 조직문화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자율적인 업무 수행 환경’(34.3%), ‘자유로운 소통 환경’(29.1%) 등을 만족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불만족’은 9.8%에 그친 가운데 주로 ‘비효율적 협업 및 정보 공유체계’(30.7%), ‘불투명한 성과 인정 방식’(30.1%) 등이 불만이었다.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62.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적절한 근로시간과 우수한 워라밸’(37.6%), ‘적정한 업무 부담과 안정적인 직무 강도’

(26.7%) 등이 주요 요인이었다. 근무 환경에 대해 ‘불만족하다’는 평가는 7.2%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48.5%는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을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추천하지 않겠다’는 15.2%였다. 이 역시 주요 고려 사항으로는 ▲연봉 및 보상 수준(36.1%) ▲기업 성장 가능성(18.9%) ▲복리후생 및 근무환경(14.9%) 등의 순으로 많았다.

창업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35.9%가 ‘있다’고 밝혔다. 직급 중에선 ‘부장 이상’이 45.8%로 가장 많았고, 대리도 29.8%로 적지 않았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 가능 여부에 대

해선 보상을 전제로 70.4%가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략·기획’(81.2%), ‘연구·개발’(80%) 등에서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재직자들이 생각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은 ▲혁신적 기술을 중심으로 성장한다(47.8%) ▲창의적이다(40.4%)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한다(35.8%) 순으로 많았다.

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비교한 장점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40.6%)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23.6%) ▲유연한 근로시간 및 워라밸 보장(15.1%) 등을 주로 꼽았다.

/김승호 기자

삼성중공업 자율항해 시스템 TQ 인증

삼성중공업이 부산에서 열리는 조선·해양 에너지 전시회에 참가해 선박 디지털 솔루션 기술 인증을 획득, 글로벌 경쟁력을 드러낸다.

삼성중공업은 21일 일본 NK 선급으로부터 자율항해 시스템 ‘SAS(Samsung Autonomous Ship)’의 TQ(Technology Qualification)를 받았다. TQ는 새로운 혁신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하는 기술 자격 인증이다. 획득 제품은 국제적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시장 내 차별화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 국내 조선업계에서 일본 선급으로부터 자율항해시스템 기술 자격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선박 유지보수 솔루션 ‘SCBM(Samsung Condition Based Maintenance)’은 미국 ABS 선급으로부터 Smart MHM(Machinery Health Monitoring) Tier2 제품설계 평가승인(PDA)을 받았다. SCBM의 제품설계 평가승인에 따라 ▲선박 내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AI 기반 이상 신호 자동 감지 및 고장 진단 ▲데이터 기반 예측 정비 기능 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2일에는 업계 최초로 ‘표면과 통신을 이용한 선박 화재감지시스템(F&G Detection System)’의 기본 인증(AiP)을 미국 선급(ABS)으로부터 받을 예정이다. 스웨덴의 ‘컨실리움’과 공동 개발한 이 시스템은 금속을 매개로 신호를 전달하는 표면과 기술을 활용한다. 선박 내 복잡한 유선 환경을 무선으로 전환해 공정 효율 및 원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으며 스마트 기기와 연동해 실시간 운용이 가능하다.

이동원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장(부사장)은 “선박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디지털솔루션이 곧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삼성중공업이 스마트선박 기술 시장을 선도해 가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

도심·오프로드 어디든 오픈-에어링… “가을바람 맞으며 달리세요”



지프 랭글러 ‘41 에디션

90km 이상에서도 파워탑 2열까지 개폐

지프 랭글러는 캠핑과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마니아들의 ‘드림카’다.

올해 국내 첫 스페셜 에디션으로 내놓은 랭글러 ‘41 에디션’은 루비콘 파워탑 4도어 모델로 파사로운 햇살과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우선 차량에 탑승하면 주변 차량들이 내려다 보여 일반 SUV 보다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덕분에 넓은 시야각을 확보할 수 있어 운전의 피로도도 크지 않다.

도심 속에서는 2륜구동으로 설정해 부드러운 주행 성능을 경험했다. 차체



지프 랭글러 ‘41 에디션.

는 높지만 흔들림이 없어 장거리 주행에도 2열 탑승자들의 부담은 크지 않았다. 특히 산길 와인딩 구간에서의 고속 주행에도 흔들림 현상은 크지 않고 차체 균형감이 한층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41 에디션’은 2.0L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됐다. 최고출력 272마력과 최대토크 40.8kg·m의 파워풀한 성능을 발휘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저단 기어로 편안한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한다. 2.72:1 셀렉트-트랙 폴타임 4WD 시스템으로 약천후 속에서도 매끄러운 주행이 가능하다.

또 오프로드 주행 시 4-LO 모드에서 목표 속도(1~8km/h)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선택-스피드 컨트롤 기능을 탑재했다.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은 파워탑이다. 도심을 벗어나 교외의 한적한 길을 주행하면서도 2열까지 덮고 있는 뚜껑 전체를 열 수 있다. 회사 측에서는 최고 시속 96km에서도 2열까지 완전 개폐가 가능해 어디서든 오픈-에어링을 즐길 수 있다고 한다. 실제 시승중에는 시속 50km에서 진행했다. 시원한 바람과 햇살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또 지프 랭글러는 거칠고 조작이 불편하다는 선입견이 있지만 이번에 출시된 모델은 12.3인치 터치스크린과 애플 카플레이어를 연결할 수 있으며 앞차 간격, 설정 속력을 유지하는 어댑티브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적용했다.

다만 지프 랭글러를 선택하면 공인 연비는 7.5km/L(복합 기준, 도심 7.1km/L 고속 8.1km/L)로 연료 효율성은 감수해야 한다. /양성운 기자 ysw@